



인구주택총조사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0.(목) 12:00 배포 2026. 8. 20.(목) 08:30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

담당 부서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책임자	과 장	경은숙 (042-481-3720)
		담당자	사무관	김미영 (042-481-3721)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일 러 두 기

□ 본 자료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기준 시점(2025년 11월 1일 0시 현재)을 기준으로 2026.2.26.~3.9. 기간 중 국가데이터처에서 만 98세 이상 고령자 가구를 방문하여 고령자 또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임

○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제외하였음

○ 시설 고령자는 실제 생년월일까지만 파악하였고, 재가 고령자 중 100세 이상은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였음

○ 만 100세 이상 여부는 가구에서 응답한 나이를 기준으로 아래의 보조질문*을 활용하여 판단한 것으로 주민등록 상 등재된 나이와는 다를 수 있음

* 실제 나이 판단을 위한 보조질문

- 실제 생년월일(양·음력), 띠
- 첫째 자녀 연령과 첫째 자녀 출산 시 고령자 연령
- 막내 자녀 연령과 막내 자녀 출산 시 고령자 연령
- 해방 당시, 6·25 당시, 88올림픽 당시 고령자 연령

□ 복수 응답한 항목의 경우 구성비는 응답자에 대한 단순 비율로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또한 표내의 합계는 반올림 등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025년 100세 이상 고령자의 규모와 분포는 2015년과 비교하였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음

목 차

□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요약	1
□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1. 100세 이상 고령자 현황	5
가. 규 모	5
나. 분 포	6
2. 100세 이상 재가 고령자 특성	8
가. 주거 현황	8
나. 고령자 및 가족에 관한 사항	9
다. 건강 상태	13
라. 생활 습관	18
마. 생활 및 시설 이용	21
바. 기타	23
□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개요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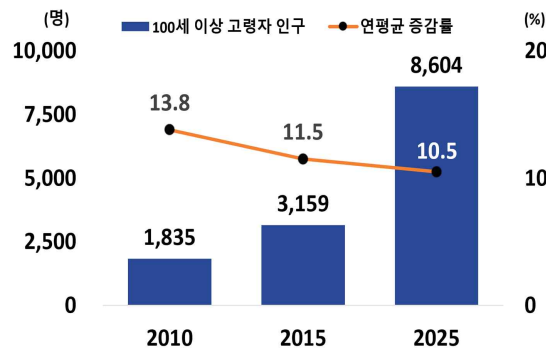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요약)

[100세 이상 고령자 현황]

2025년 11월 1일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8,604명, 인구 10만 명당 17.3명

- 100세 이상 고령자는 8,604명으로 2015년 3,159명에 비해 5,445명(172.4%) 증가
 - 연평균 증감률은 10.5%로 2015년 11.5%에 비해 감소
 -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17.3명으로 2015년 6.4명에 비해 10.9명 증가
- 고령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 7,176명(83.4%), 남자 1,428명(16.6%)이며, 성비는 19.9임

[100세 이상 고령자 추이]



시도별 100세 이상은 경기(2,052명), 인구 10만 명당은 전남(31.8명)이 가장 많음

- 시도별 고령자는 경기(2,052명), 서울(1,268명), 경북(559명) 순으로 많음
 - 인구 10만 명당 고령자는 전남(31.8명), 제주(30.4명), 강원(28.6명) 순으로 많음
- 동(洞)지역에는 5,663명(65.8%), 읍면(邑面)지역에는 2,941명(34.2%)이 거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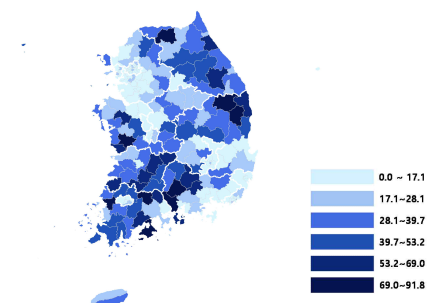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고령자]



시군구는 경기 고양시(188명), 인구 10만 명당은 전남 고흥군(91.8명)이 가장 많음

- 시군구별 100세 이상 고령자는 경기 고양시(188명), 경기 용인시(169명), 경기 수원시(152명) 순임
 - 고령자 인구 수 상위 10개 시군구 중 7곳 (고양·용인·수원·남양주·성남·부천·안산)이 경기 소재로 나타남
 - 인구 10만 명당 고령자는 전남 고흥군(91.8명), 경북 영양군(89.6명), 경북 봉화군(86.8명) 순임

[시군구별 인구 10만 명당 고령자]



[100세 이상 재가 고령자 특성]

※ 고령자 8,604명 중 재가에서 조사된 4,280명에 대한 집계 결과임

100세 이상 고령자는 단독주택(48.5%), 아파트(41.2%) 순으로 거주

- 100세 이상 재가 고령자 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48.5%이며, 다음으로 아파트(41.2%)에 거주

- 연립·다세대 주택 등 그 외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은 10.3%임

- 고령자를 배려한 주거 편의 시설*을 1개 이상 갖춘 경우는 83.9%로 나타남

* 문턱없애기, 안전손잡이, 비상벨 등

[고령자의 주거 현황]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는 75.1%이고, 1인 가구는 20.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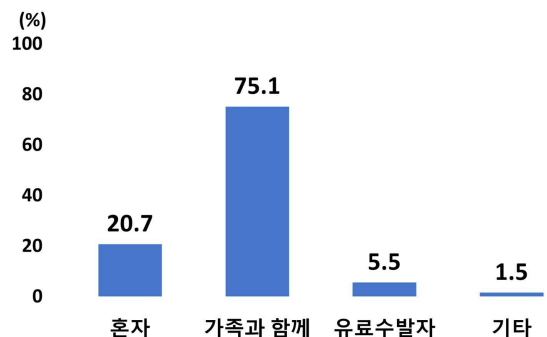
- 100세 이상 재가 고령자가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은 75.1%임

- 자녀 및 그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은 68.4%,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는 5.6%임

- 혼자 사는 고령자는 20.7%임

- 세대 구성별로는 2세대 가구가 64.0%이고, 3세대 이상 가구(7.0%), 1세대 가구(4.1%) 순임

[고령자의 동거 가족(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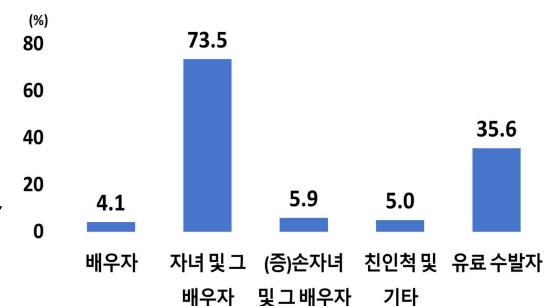
고령자를 돌보는 사람은 자녀 및 그 배우자(73.5%), 유료 수발자(35.6%) 순임

- 100세 이상 재가 고령자를 돌보는 사람은 자녀 및 그 배우자가 73.5%이며,

- 유료수발자(요양보호사, 간병인 등)(35.6%), (중)손자녀 및 그 배우자(5.9%) 순임

- 고령자를 돌보는 자녀는 아들(52.4%), 딸(34.9%), 며느리(34.5%)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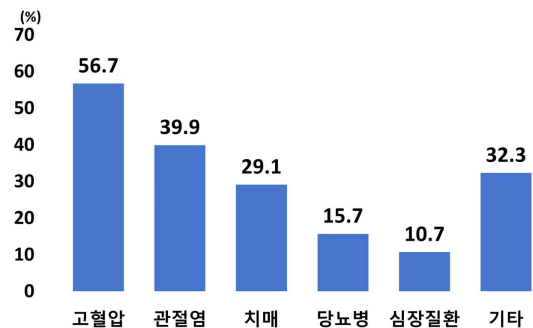
[고령자를 돌보는 사람(복수 응답)]



고령자가 앓고 있는 질병은 고혈압(56.7%), 관절염(39.9%), 치매(29.1%) 순임

- 앓고 있는 질병(만성질환)이 있는 100세 이상 재가 고령자는 90.0%임
-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여자(90.9%)가 남자(86.9%)보다 4.0%p 높음
- 앓고 있는 질병은 고혈압(56.7%), 관절염(39.9%), 치매(29.1%), 당뇨병(15.7%)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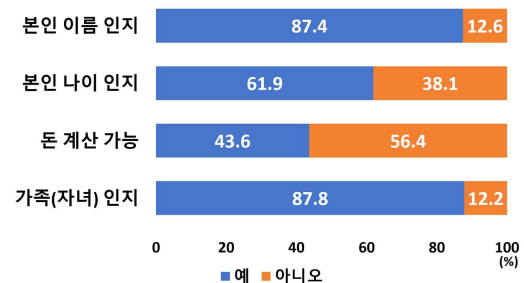
[고령자의 만성질환 종류(복수 응답)]



고령자 중 87.8%가 가족을, 87.4%가 본인의 이름을 인지하고 있음

- 본인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100세 이상 재가 고령자는 87.4%, 본인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고령자는 61.9%임
- 돈 계산 등이 가능한 고령자는 43.6%, 가족(자녀)을 알아보는 고령자는 87.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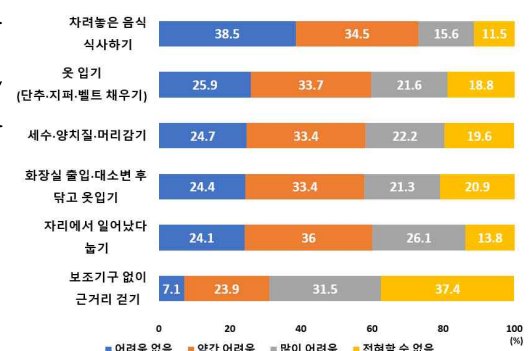
[고령자의 인지 상태]



고령자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81.8%이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는 이동(62.2%), 씹기(54.3%) 기구 순임

- 고령자가 많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는 이동(62.2%), 씹기(54.3%), 시력(25.6%), 청력(24.7%) 기구 순임
- 고령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상행동은 '차려놓은 음식 식사하기'(38.5%), '옷 입기'(25.9%), '세수·양치질·머리감기'(24.7%),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24.4%) 순임
- 고령자가 혼자 할 수 있는 도구적 일상행동은 '전화걸고 받기'(13.1%), '가벼운 집안일 하기'(7.0%), '필요한 물건 직접 구매하기'(6.7%)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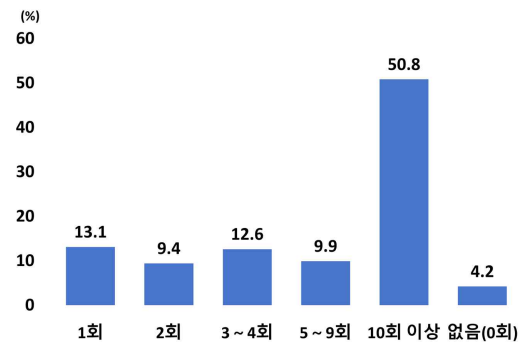
[고령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고령자의 타지 자녀·이웃 등과의 만남은 월 평균 12.7회임

-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평소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이웃, 친척, 지인, 요양보호사 등과 만나는 횟수는 월 평균 12.7회임
- 고령자가 평소 한 달 동안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이웃, 친척, 지인, 요양보호사 등과 연락하는 월 평균 횟수는 8.7회임
- 고령자의 월 평균 의료시설 이용 횟수는 1.6회 (이용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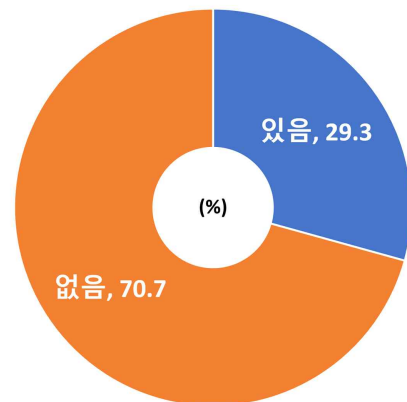
[고령자의 대인 관계(만남)]



고령자의 70.7%는 향후 시설 입소 의향이 없으며, 재가 생활 시 집의 구조나 설비가 가장 불편(47.9%)하다고 느낌

- 건강이 악화되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할 의향이 없음은 70.7%, 있음은 29.3%임
- 시설 입소 의향 없음의 주요 사유는 '가족이 직접 돌봄', '익숙한 집·환경에서 지내고 싶음', '시설에 대한 거부감·부정적 인식' 등임
- 집(거처)에서 생활하면서 '출입구, 계단, 문턱 등 구조나 설비(47.9%)가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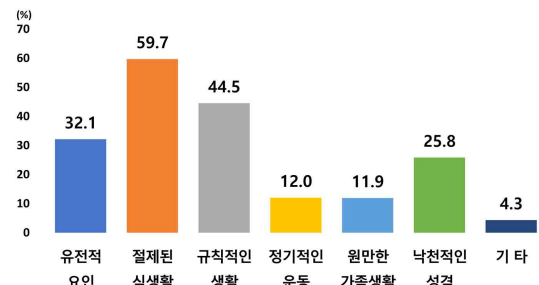
[시설 입소 의향 여부]



장수 비결은 절제된 식생활, 규칙적인 생활, 유전적 요인 순임

- 100세 이상 고령자가 생각하는 장수 비결은 절제된 식생활(소식 등)(59.7%), 규칙적인 생활(44.5%), 유전적 요인(장수 집안)(32.1%) 순임
- 고령자의 86.9%는 평생 흡연한 적이 없으며, 79.6%는 평생 음주를 한 적이 없음으로 나타남
- 음주와 흡연을 전혀 하지 않은 고령자는 75.8%임

[고령자의 장수 비결(복수 응답)]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

1. 100세 이상 고령자 현황

가. 규모

100세 이상 고령자는 8,604명, 2015년 3,159명보다 172.4%(5,445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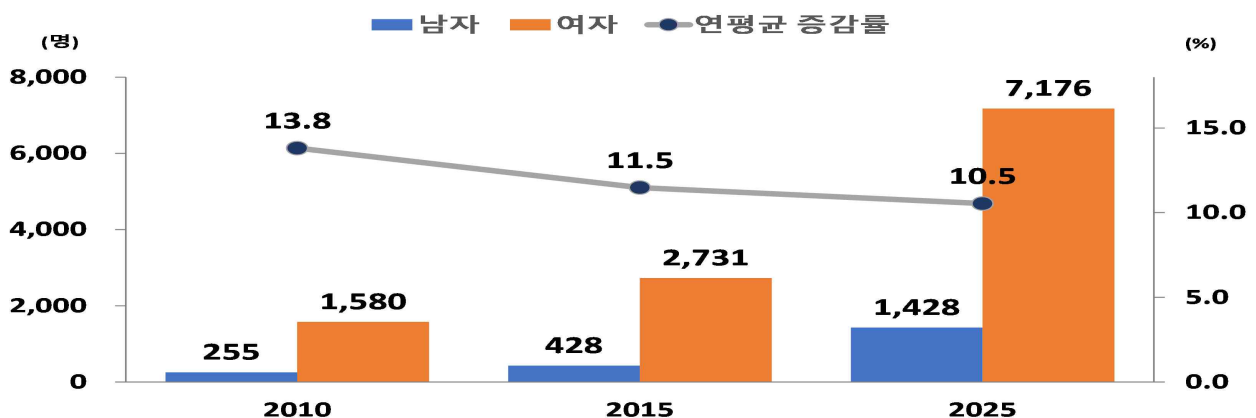
- 2025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만 100세 이상 고령자는 8,604명으로 2015년 3,159명에 비해 5,445명(172.4%)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가 1,428명(16.6%), 여자가 7,176명(83.4%)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5,748명 많고,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는 19.9임
-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2015년 6.4명에 비해 2025년 17.3명으로 2.7배 증가
- 연평균 증감률은 2025년 10.5%로 2015년 11.5%에 비해 감소

〈 표 1 〉 100세 이상 고령자 규모(2010, 2015, 2025)

(단위: 명, %, %p)

	2010년(A)		2015년(B)		2025년(C)		증 감(C-B)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전 체	1,835	100.0	3,159	100.0	8,604	100.0	5,445	172.4
남 자	255	13.9	428	13.5	1,428	16.6	1,000	233.6
여 자	1,580	86.1	2,731	86.5	7,176	83.4	4,445	162.8
인구 10만 명당	3.8	-	6.4	-	17.3	-	10.9	172.3
연평균 증감률	13.8	-	11.5	-	10.5	-	-0.9	-

〈 그림 1 〉 100세 이상 성별 고령자 추이(2010, 2015, 2025)



나. 분포

시도별 100세 이상은 경기(2,052명), 인구 10만 명당은 전남(31.8명)이 가장 많음

1) 시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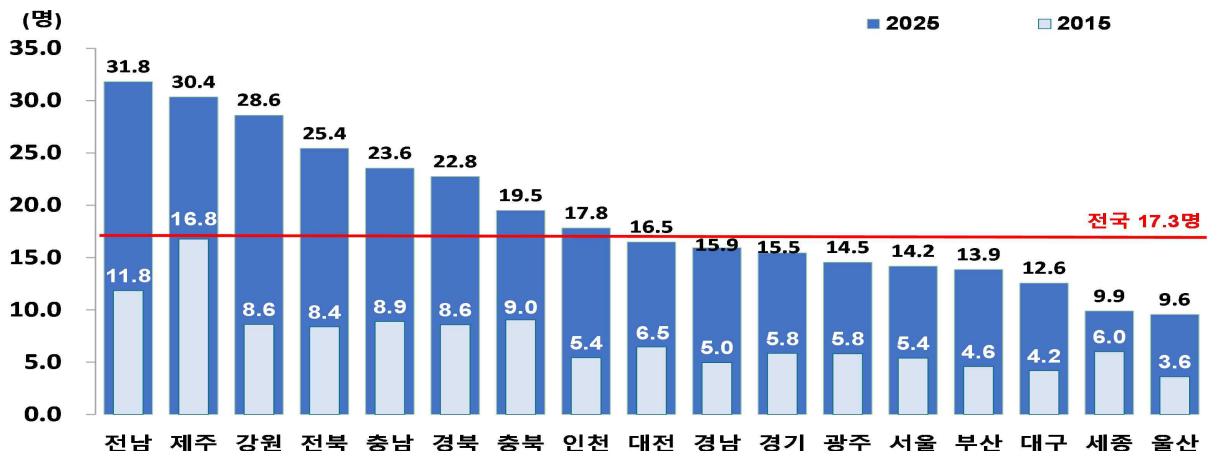
- 시도별 100세 이상 고령자는 경기가 2,052명(23.8%)으로 가장 많고, 서울 1,268명(14.7%), 경북 559명(6.5%) 순임
- 동(洞) 지역에는 5,663명(65.8%)이 거주하고, 읍면(邑面) 지역에는 2,941명(34.2%)이 거주함
-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전남이 31.8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30.4명), 강원(28.6명) 순임

〈 표 2 〉 시도별 100세 이상 고령자 분포(2025)

(단위: 명, %)

시 도	인 구	구성비	성 비	10만 명당	시 도	인 구	구성비	성 비	10만 명당
전 국	8,604	100.0	19.9	17.3	세 종	38	0.4	18.8	9.9
동지역	5,663	65.8	20.4	14.0	경 기	2,052	23.8	23.5	15.5
읍면지역	2,941	34.2	19.0	32.2	강 원	423	4.9	26.3	28.6
서 울	1,268	14.7	27.6	14.2	충 북	307	3.6	20.9	19.5
부 산	439	5.1	14.6	13.9	충 남	495	5.8	21.6	23.6
대 구	291	3.4	17.3	12.6	전 북	430	5.0	13.8	25.4
인 천	528	6.1	20.5	17.8	전 남	541	6.3	16.6	31.8
광 주	203	2.4	13.4	14.5	경 북	559	6.5	15.0	22.8
대 전	237	2.8	19.1	16.5	경 남	497	5.8	12.2	15.9
울 산	102	1.2	10.9	9.6	제 주	194	2.3	6.6	30.4

〈 그림 2 〉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2015, 2025)



시군구는 경기 고양시(188명), 인구 10만 명당은 전남 고흥군(91.8명)이 가장 많음

2) 시군구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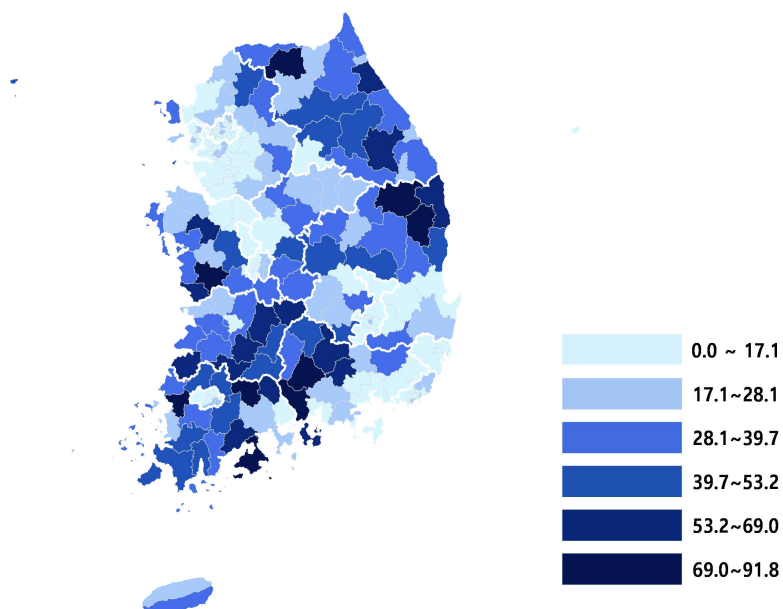
- 시군구별 100세 이상 고령자 규모를 보면 경기 고양시가 18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용인시(169명), 경기 수원시(152명) 순임
-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전남 고흥군 91.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영양군(89.6명), 경북 봉화군(86.8명) 순임

〈 표 3 〉 시군구별 100세 이상 고령자(인구 순위, 2025)

(단위: 명)

순 위	시도 및 시군구	인 구	순 위	시도 및 시군구	10만 명당
1	경기 고양시	188	1	전남 고흥군	91.8
2	경기 용인시	169	2	경북 영양군	89.6
3	경기 수원시	152	3	경북 봉화군	86.8
4	경기 남양주시	142	4	경남 하동군	78.8
5	제주 제주시	132	5	경남 산청군	77.7
6	경기 성남시	131	6	전남 함평군	77.0
7	경기 부천시	124	7	강원 화천군	75.5
8	충북 청주시	114	8	전남 곡성군	71.1
9	경기 안산시	100	9	충남 부여군	69.6
10	인천 서구	96	10	경남 남해군	68.9

〈 그림 3 〉 시군구별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 분포(2025)



2. 100세 이상 재가 고령자 특성

※ 고령자 8,604명 중 재가에서 조사된 4,280명에 대한 집계 결과임

가. 주거 현황

고령자의 거처는 단독주택(48.5%), 아파트(41.2%) 순임

1) 거처의 종류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고령자는 48.5%임

〈 표 4 〉 거처의 종류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계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내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전 체	4,280 (100.0)	4,245 (99.2)	2,075 (48.5)	1,764 (41.2)	159 (3.7)	223 (5.2)	24 (0.6)	35 (0.8)

2) 점유 형태

□ 100세 이상 고령자가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은 76.3%이며, 동 지역에는 70.6%, 읍면 지역에는 87.1%가 자기 집에 거주

〈 표 5 〉 거처의 점유 형태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계	자기 집	전 세	월 세	무 상
전 체	4,280 (100.0)	3,264 (76.3)	229 (5.4)	473 (11.1)	314 (7.3)
동지역	2,811 (100.0)	1,984 (70.6)	208 (7.4)	414 (14.7)	205 (7.3)
읍면지역	1,469 (100.0)	1,280 (87.1)	21 (1.4)	59 (4.0)	109 (7.4)

3) 주거 편의 시설

□ 100세 이상 고령자가 거주하는 거처에서 고령자를 배려한 시설을 1개 이상 갖춘 경우는 83.9%임

〈 표 6 〉 주거 편의 시설 현황별 고령자(복수 응답*, 2025)

(단위: 명, %)

	계	편의시설 있음**	문턱 없음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휠체어 이동 폭	비상벨	실외 경사로	편의시설 없음
전 체	4,280 (100.0)	3,593 (83.9)	1,710 (40.0)	1,969 (46.0)	2,363 (55.2)	1,721 (40.2)	796 (18.6)	1,501 (35.1)	687 (16.1)

* 주거 편의 시설은 복수 응답으로 항목의 합은 전체보다 많음

** 고령자를 배려한 편의 시설 : 문턱 없애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방문의 폭이 실내 휠체어 이동 가능, 비상벨, 실외 휠체어 경사로 6종(1개 이상 보유 기준)

나. 고령자 및 가족에 관한 사항

고령자 중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음이 59.8%, 사별이 92.8%임

1) 교육 정도

□ 100세 이상 고령자의 교육 정도별 분포를 보면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59.8%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24.3%), 고등학교(6.4%) 순임

○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남자 고령자는 22.4%, 여자 고령자는 69.6%로 나타남

〈 표 7 〉 교육 정도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계	받 지 않았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상
전 체	4,280 (100.0)	2,559 (59.8)	1,042 (24.3)	208 (4.9)	273 (6.4)	198 (4.6)
남 자	890 (100.0)	199 (22.4)	294 (33.0)	112 (12.6)	135 (15.2)	150 (16.9)
여 자	3,390 (100.0)	2,360 (69.6)	748 (22.1)	96 (2.8)	138 (4.1)	48 (1.4)

2) 혼인 상태

□ 고령자의 혼인 상태는 사별 비율이 92.8%로 나타남

○ 남자 고령자의 배우자는 30.2%가 생존하고 있으나, 여자 고령자의 배우자는 0.7%가 생존하고 있음

〈 표 8 〉 혼인 상태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계	미 혼	배우자 있음	사 별	이 혼
전 체	4,280 (100.0)	13 (0.3)	292 (6.8)	3,970 (92.8)	5 (0.1)
남 자	890 (100.0)	2 (0.2)	269 (30.2)	618 (69.4)	1 (0.1)
여 자	3,390 (100.0)	11 (0.3)	23 (0.7)	3,352 (98.9)	4 (0.1)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는 75.1%, 혼자 사는 고령자는 20.7% 임

3) 동거 가족

□ 100세 이상 고령자 중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은 75.1%이며, 혼자 사는 고령자는 20.7%임

○ 고령자가 함께 사는 가족으로는 자녀 및 그 배우자 68.4%,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 9.6%, 배우자 5.6% 순임

〈 표 9 〉 동거 가족별 고령자(복수 응답*, 2025)

(단위: 명, %)

	계	혼자	가족**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	유료 수발자	기타***
전 체	4,280 (100.0)	885 (20.7)	3,215 (75.1)	238 (5.6)	2,926 (68.4)	413 (9.6)	236 (5.5)	66 (1.5)

* 동거 가족은 복수 응답으로 항목의 합은 전체보다 많음

** 가족 : 배우자,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손자녀 및 증손자녀(배우자 포함)

*** 기타 : 기타 친인척 및 그 외 같이 사는 사람

□ 고령자를 세대 구성별로 보면 친족 가구는 75.1%, 1인 가구는 20.7%로 나타남

○ 부부만 동거하는 1세대 가구는 4.1%임

○ 2세대 가구의 비율은 64.0%로 가장 높으며, 3세대 이상 가구는 7.0%임

〈 표 10 〉 세대 구성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전 체		남 자		여 자	
계	4,280	(100.0)	890	(100.0)	3,390	(100.0)
1인 가구	885	(20.7)	195	(21.9)	690	(20.4)
친족 가구	3,215	(75.1)	645	(72.5)	2,570	(75.8)
1세대 가구	175	(4.1)	165	(18.5)	10	(0.3)
2세대 가구	2,741	(64.0)	414	(46.5)	2,327	(68.6)
자녀와만 동거	2,627	(61.4)	402	(45.2)	2,225	(65.6)
손자녀와만 동거	114	(2.7)	12	(1.3)	102	(3.0)
3세대 이상 가구	299	(7.0)	66	(7.4)	233	(6.9)
비친족가구	180	(4.2)	50	(5.6)	130	(3.8)

고령자를 돌보는 사람은 자녀 및 그 배우자(73.5%), 유료 수발자(35.6%) 순임

4) 돌보는 사람

□ 100세 이상 고령자를 돌보는 사람은 자녀 및 그 배우자가 73.5%,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유료 수발자 35.6%,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가 5.9%임

○ 고령자를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돌보는 비율은 83.5% 임

〈 표 11 〉 돌보는 사람별 고령자(복수 응답*, 2025)

(단위: 명, %)

	계	수발자 있음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	친인척 및 기타**	유 료 수발자	수발자 없음
전 체	4,280 (100.0)	4,146 (96.9)	174 (4.1)	3,147 (73.5)	254 (5.9)	214 (5.0)	1,522 (35.6)	134 (3.1)
남 자	890 (100.0)	856 (96.2)	168 (18.9)	545 (61.2)	37 (4.2)	46 (5.2)	323 (36.3)	34 (3.8)
여 자	3,390 (100.0)	3,290 (97.1)	6 (0.2)	2,602 (76.8)	217 (6.4)	168 (5.0)	1,199 (35.4)	100 (2.9)

* 돌보는 사람은 복수 응답으로 항목의 합은 전체보다 많음

** 기타 : 이웃 또는 무료 수발자, 종교·사회단체 등

□ 고령자를 가족이 돌보는 경우, 아들이 52.4%, 딸 34.9%, 며느리 34.5% 순임

○ 배우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경우가 4.9%인데, 남자 고령자 중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는 22.4%, 여자 고령자는 0.2%로 나타남

〈 표 12 〉 돌보는 가족 유형별 고령자(복수 응답*, 2025)

(단위: 명, %)

	계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아 들	며느리	딸	사 위	손 자, 손 녀 등
전 체	3,575 (100.0)	174 (4.9)	3,147 (88.0)	1,873 (52.4)	1,232 (34.5)	1,246 (34.9)	276 (7.7)	254 (7.1)
남 자	750 (100.0)	168 (22.4)	545 (72.7)	356 (47.5)	223 (29.7)	199 (26.5)	41 (5.5)	37 (4.9)
여 자	2,825 (100.0)	6 (0.2)	2,602 (92.1)	1,517 (53.7)	1,009 (35.7)	1,047 (37.1)	235 (8.3)	217 (7.7)

* 돌보는 가족은 복수 응답으로 항목의 합은 전체보다 많음

종교 있는 비율은 51.0%, 주로 종사한 직업은 농림어업 종사자(29.5%)임

5) 종교

□ 종교가 있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51.0%임

○ 성별로는 여자 53.5%, 남자 41.2%임

〈 표 13 〉 종교 유무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계	종교 있음	종교 없음
전 체	4,280 (100.0)	2,181 (51.0)	2,099 (49.0)
남 자	890 (100.0)	367 (41.2)	523 (58.8)
여 자	3,390 (100.0)	1,814 (53.5)	1,576 (46.5)

6) 생애 주된 직업

□ 직업이 있었던 10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59.7%로 나타남

○ 남자는 97.1%가 직업이 있었고, 여자는 49.9%가 직업이 있었음

□ 고령자가 주로 종사했던 직업은 농림어업 종사자가 29.5%로 가장 많았고, 판매 종사자(6.5%), 관리자·전문가(5.6%) 순임

〈 표 14 〉 직업 유무 및 생애 주된 직업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계	직 업 있 음	관리자, 전문가	판 매 종사자	농림어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기 타*	직 업 없 음
전 체	4,280 (100.0)	2,557 (59.7)	240 (5.6)	278 (6.5)	1,261 (29.5)	175 (4.1)	603 (14.1)	1,723 (40.3)
남 자	890 (100.0)	864 (97.1)	167 (18.8)	71 (8.0)	265 (29.8)	52 (5.8)	309 (34.7)	26 (2.9)
여 자	3,390 (100.0)	1,693 (49.9)	73 (2.2)	207 (6.1)	996 (29.4)	123 (3.6)	294 (8.7)	1,697 (50.1)

* 기타 :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군인

□ 직업이 있었던 고령자를 종사 기간별로 구분 50~59년이 18.0%로 가장 많고, 60~69년(17.2%), 40~49년(16.4%), 70년 이상(16.4%) 순임

〈 표 15 〉 종사 기간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계	19년 이하	20 ~ 29년	30 ~ 39년	40 ~ 49년	50 ~ 59년	60 ~ 69년	70년 이상
전 체	2,557 (100.0)	193 (7.5)	244 (9.5)	382 (14.9)	420 (16.4)	460 (18.0)	439 (17.2)	419 (16.4)
남 자	864 (100.0)	54 (6.3)	85 (9.8)	176 (20.4)	210 (24.3)	132 (15.3)	90 (10.4)	117 (13.5)
여 자	1,693 (100.0)	139 (8.2)	159 (9.4)	206 (12.2)	210 (12.4)	328 (19.4)	349 (20.6)	302 (17.8)

다. 건강 상태

고령자가 앓고 있는 질병은 고혈압, 관절염, 치매 순임

1) 주관적 건강 상태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건강이 나쁜 편임’이 31.2%, ‘보통임’이 29.6%, ‘건강한 편임’이 22.6% 순임

〈 표 16 〉 주관적 건강 상태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계	매우 건강함	건강한 편임	보통임	건강이 나쁜 편임	건강이 매우 나쁨
전 체	4,280 (100.0)	188 (4.4)	969 (22.6)	1,268 (29.6)	1,336 (31.2)	519 (12.1)
남 자	890 (100.0)	57 (6.4)	248 (27.9)	273 (30.7)	245 (27.5)	67 (7.5)
여 자	3,390 (100.0)	131 (3.9)	721 (21.3)	995 (29.4)	1,091 (32.2)	452 (13.3)

2) 신체 건강 상태

□ 앓고 있는 신체적인 질병(만성질환)이 있는 100세 이상 고령자는 90.0%로 나타남

□ 질병의 종류별로 보면 고혈압 56.7%로 가장 많고, 관절염(39.9%), 치매(29.1%), 당뇨병(15.7%) 순임

〈 표 17 〉 신체적인 질병 유무 및 질병 종류별 고령자(복수 응답*, 2025)

(단위: 명, %)

	계	질 병 있 음	고혈압	관절염	치매	당뇨병	심장질환	기타**	질 병 없 음
전 체	4,280 (100.0)	3,854 (90.0)	2,425 (56.7)	1,708 (39.9)	1,247 (29.1)	673 (15.7)	456 (10.7)	1,384 (32.3)	426 (10.0)
남 자	890 (100.0)	773 (86.9)	452 (50.8)	283 (31.8)	173 (19.4)	168 (18.9)	130 (14.6)	340 (38.2)	117 (13.1)
여 자	3,390 (100.0)	3,081 (90.9)	1,973 (58.2)	1,425 (42.0)	1,074 (31.7)	505 (14.9)	326 (9.6)	1,044 (30.8)	309 (9.1)

* 신체 건강 상태는 복수 응답으로 항목의 합은 전체보다 많음

** 기타 : 천식, 뇌졸중, 우울증, 암, 파킨슨병, 간질환 등

3) 신체 기능 상태

- ☐ 보조기구를 1개 이상 사용하는 100세 이상 고령자는 81.8%이고,
 - 보조기구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시력, 청력, 씹기, 이동의 기능 상태가 모두 ‘불편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고령자는 5.0% 임
- ☐ 안경, 돋보기 등 시력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고령자는 25.6%이며,
 - 시력 보조기구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TV, 신문 등을 보는데 ‘불편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고령자는 31.9%임
- ☐ 보청기 등 청력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고령자는 24.7%이며,
 - 청력 보조기구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전화 통화나 옆 사람과의 대화 등이 ‘불편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고령자는 15.6%임
- ☐ 틀니 등 씹기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고령자는 54.3%이며,
 - 씹기 보조기구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고기나 딱딱한 것 씹기 등이 ‘불편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고령자는 16.9%임
- ☐ 휠체어, 지팡이 등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고령자는 62.2%이며,
 - 이동 보조기구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가까운 거리 걷기가 ‘불편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고령자는 9.8%임

〈 표 18 〉 신체 기능 상태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계	보조기구 사용 여부		기능 상태		
		사 용	사용 안함	불편하지 않음	불편한 편임	매우 불편함
시 력	4,280 (100)	1,095 (25.6)	3,185 (74.4)	1,364 (31.9)	2,070 (48.4)	846 (19.8)
청 력	4,280 (100)	1,057 (24.7)	3,223 (75.3)	669 (15.6)	2,059 (48.1)	1,552 (36.3)
씹 기	4,280 (100)	2,323 (54.3)	1,957 (45.7)	725 (16.9)	2,394 (55.9)	1,161 (27.1)
이 동	4,280 (100)	2,662 (62.2)	1,618 (37.8)	420 (9.8)	2,006 (46.9)	1,854 (43.3)

고령자 중 87.8%가 가족을, 87.4%가 본인의 이름을 인지함

4) 인지 상태

☐ 본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100세 이상 고령자는 87.4%임

○ 남자 고령자의 94.3%, 여자 고령자의 85.5%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함

☐ 본인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고령자는 61.9%임

○ 남자 고령자의 79.2%, 여자 고령자의 57.4%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함

☐ 돈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고령자는 43.6%임

○ 남자 고령자의 62.5%, 여자 고령자의 38.6%가 할 수 있다고 응답함

☐ 가족(자녀)들을 알아 볼 수 있는 고령자는 87.8%임

○ 남자 고령자의 93.5%, 여자 고령자의 86.3%가 알아 볼 수 있다고 응답함

☐ 위의 네 가지에 대한 인지가 모두 가능한 고령자는 40.4%임

○ 남자 고령자의 60.6%, 여자 고령자의 35.1%가 모두 인지 가능

〈 표 19 〉 인지 상태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계	본인 이름 인지		본인 나이 인지		돈 계산 가능		가족(자녀) 인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4,280 (100.0)	3,739 (87.4)	541 (12.6)	2,651 (61.9)	1,629 (38.1)	1,866 (43.6)	2,414 (56.4)	3,757 (87.8)	523 (12.2)
남 자	890 (100.0)	839 (94.3)	51 (5.7)	705 (79.2)	185 (20.8)	556 (62.5)	334 (37.5)	832 (93.5)	58 (6.5)
여 자	3,390 (100.0)	2,900 (85.5)	490 (14.5)	1,946 (57.4)	1,444 (42.6)	1,310 (38.6)	2,080 (61.4)	2,925 (86.3)	465 (13.7)

고령자 중 38.5%가 '차려놓은 음식 식사하기'를 혼자 할 수 있음

5)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 100세 이상 고령자가 기본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행동 중 '차려놓은 음식 식사하기'(38.5%)가 가장 많고,

○ '옷입기'(25.9%), '세수하기·양치하기·머리감기'(24.7%) 순임

〈 표 20 〉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계	어려움 없음	약간 있음	많이 있음	전혀 할 수 없음
세수하기·양치질하기·머리감기	4,280 (100.0)	1,056 (24.7)	1,431 (33.4)	952 (22.2)	841 (19.6)
옷 입기(옷 꺼내기, 단추·지퍼·벨트 채우기)	4,280 (100.0)	1,110 (25.9)	1,444 (33.7)	923 (21.6)	803 (18.8)
차려놓은 음식 식사하기	4,280 (100.0)	1,646 (38.5)	1,475 (34.5)	666 (15.6)	493 (11.5)
자리에서 일어났다 눕기	4,280 (100.0)	1,032 (24.1)	1,541 (36.0)	1,116 (26.1)	591 (13.8)
보조기구 없이 근거리 걷기	4,280 (100.0)	305 (7.1)	1,024 (23.9)	1,350 (31.5)	1,601 (37.4)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4,280 (100.0)	1,046 (24.4)	1,429 (33.4)	912 (21.3)	893 (20.9)

□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제약개수*가 6개인 고령자는 57.1%이며, 제약이 하나도 없는 고령자는 5.6%임

* 제약개수 :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6개 항목 중 '어려움 없음'을 제외한 어려움이 있는 항목의 총개수

〈 표 21 〉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약개수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계	제약 없음	제약 있음	1개	2~3개	4~5개	6개
전 체	4,280 (100.0)	238 (5.6)	4,042 (94.4)	422 (9.9)	478 (11.2)	699 (16.3)	2,443 (57.1)
남 자	890 (100.0)	92 (10.3)	798 (89.7)	122 (13.7)	138 (15.5)	136 (15.3)	402 (45.2)
여 자	3,390 (100.0)	146 (4.3)	3,244 (95.7)	300 (8.8)	340 (10.0)	563 (16.6)	2,041 (60.2)

고령자 중 13.1%가 '전화 걸고 받기'를 혼자 할 수 있음

6)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 100세 이상 고령자가 도구적 일상 행동에서 '어려움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행동 중 '전화걸고 받기'(13.1%)가 가장 많고,
- '실내 청소, 침구정리 등 가벼운 집안일 하기'(7.0%), '필요한 물건 직접 구매하기'(6.7%) 순임

〈 표 22 〉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계	어려움 없음	약 간 있 음	많 이 있 음	전혀 할 수 없음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매하기	4,280 (100.0)	285 (6.7)	532 (12.4)	620 (14.5)	2,843 (66.4)
전화걸고 받기	4,280 (100.0)	559 (13.1)	1,053 (24.6)	974 (22.8)	1,694 (39.6)
대중교통 이용하기	4,280 (100.0)	137 (3.2)	270 (6.3)	524 (12.2)	3,349 (78.2)
가벼운 집안일 하기(실내청소, 침구정리, 집안 정리 정돈 등)	4,280 (100.0)	301 (7.0)	914 (21.4)	883 (20.6)	2,182 (51.0)

-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제약개수*가 4개인 고령자는 83.3%이며, 제약이 하나도 없는 고령자는 2.1%임

* 제약개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4개 항목 중 '어려움 없음'을 제외한 어려움이 있는 항목의 총개수

〈 표 23 〉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약개수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계	제약 없음	제약 있음	1개	2개	3개	4개
전 체	4,280 (100.0)	90 (2.1)	4,190 (97.9)	76 (1.8)	147 (3.4)	400 (9.3)	3,567 (83.3)
남 자	890 (100.0)	49 (5.5)	841 (94.5)	27 (3.0)	46 (5.2)	112 (12.6)	656 (73.7)
여 자	3,390 (100.0)	41 (1.2)	3,349 (98.8)	49 (1.4)	101 (3.0)	288 (8.5)	2,911 (85.9)

라. 생활 습관

고령자의 79.6%가 평생 금주, 86.9%가 평생 금연함

1) 음주 여부

- ☐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100세 이상 고령자는 79.6%로 나타남
 - 남자 고령자의 42.7%, 여자 고령자의 89.4%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음
- ☐ 음주 경험이 있는 고령자의 평균 음주 기간은 38.9년(남자는 42.2년, 여자는 34.1년)임

〈 표 24 〉 음주 여부 및 음주 기간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계	음주경험 있음	현재 마심	마셨으나 끊음	19년이하	20 ~ 39년	40 ~ 59년	60년이상	마신적 없음
전체	4,280 (100.0)	871 (20.4)	136 (3.2)	735 (17.2)	129 (3.0)	301 (7.0)	250 (5.8)	191 (4.5)	3,409 (79.6)
남자	890 (100.0)	510 (57.3)	70 (7.9)	440 (49.4)	51 (5.7)	163 (18.3)	163 (18.3)	133 (14.9)	380 (42.7)
여자	3,390 (100.0)	361 (10.6)	66 (1.9)	295 (8.7)	78 (2.3)	138 (4.1)	87 (2.6)	58 (1.7)	3,029 (89.4)

2) 흡연 여부

- ☐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100세 이상 고령자는 86.9%로 나타났음
 - 남자 고령자의 51.6%, 여자 고령자의 96.2%는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았음
- ☐ 흡연 경험이 있는 고령자의 평균 흡연 기간은 33.9년(남자는 35.2년, 여자는 29.6년)임

〈 표 25 〉 흡연 여부 및 흡연 기간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계	흡연경험 있음	현재 피움	피웠으나 끊음	19년이하	20 ~ 39년	40 ~ 59년	60년이상	피운적 없음
전체	4,280 (100.0)	559 (13.1)	41 (1.0)	518 (12.1)	98 (2.3)	231 (5.4)	159 (3.7)	71 (1.7)	3,721 (86.9)
남자	890 (100.0)	431 (48.4)	24 (2.7)	407 (45.7)	54 (6.1)	190 (21.3)	132 (14.8)	55 (6.2)	459 (51.6)
여자	3,390 (100.0)	128 (3.8)	17 (0.5)	111 (3.3)	44 (1.3)	41 (1.2)	27 (0.8)	16 (0.5)	3,262 (96.2)

3) 음주 및 흡연 여부

- ☐ 음주와 흡연 여부의 교차분석 결과 음주 및 흡연을 전혀 하지 않은 고령자는 75.8%이고, 현재 음주와 흡연을 하는 고령자는 0.4%임

〈 표 26 〉 음주 및 흡연 여부 고령자(2025)

(단위: 명, %)

	계	현재 피움	피웠으나 끊음	피운적 없음
계	4,280 (100.0)	41 (1.0)	518 (12.1)	3,721 (86.9)
현재 마심	136 (3.2)	15 (0.4)	44 (1.0)	77 (1.8)
마셨으나 끊음	735 (17.2)	9 (0.2)	326 (7.6)	400 (9.3)
마신적 없음	3,409 (79.6)	17 (0.4)	148 (3.5)	3,244 (75.8)

4) 시간 활용

- ☐ 평소 낮에 하는 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100세 이상 고령자는 78.4%임
- 남자 고령자의 85.3%가 하는 활동이 있고, 여자 고령자는 76.5%가 하는 활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평소 낮의 활동을 유형별로 보면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가 64.6%로 가장 많고, '주변 산책'(8.8%), '주간보호센터 방문'(7.8%) 순임

〈 표 27 〉 시간 활용별 고령자(복수 응답*, 2025)

(단위: 명, %)

	계	활동 있음	TV시청 라디오 청취	주변산책 (밖에앉기등)	주간보호센터 (시설프로그램)	노인정, 마을회관	기 타**	활동 없음
전 체	4,280 (100.0)	3,354 (78.4)	2,764 (64.6)	375 (8.8)	335 (7.8)	312 (7.3)	771 (18.0)	926 (21.6)
남 자	890 (100.0)	759 (85.3)	641 (72.0)	148 (16.6)	64 (7.2)	47 (5.3)	164 (18.4)	131 (14.7)
여 자	3,390 (100.0)	2,595 (76.5)	2,123 (62.6)	227 (6.7)	271 (8.0)	265 (7.8)	607 (17.9)	795 (23.5)

* 시간 활용은 복수 응답으로 항목의 합은 전체보다 많음

** 기타 : 집안(가사)일, 가족·친지·친구 등 다른사람과 사교, 종교 활동, 텃밭 가꾸기 등 가벼운 일

5) 대인 관계

□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평소 한 달 동안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이웃, 친척, 지인, 요양보호사 등과 만나는 경우는 10회 이상이 50.8%로 가장 많고,

○ 만남이 없는 경우는 4.2%임

□ 월 평균 만남 횟수는 12.7회(남자 12.6회, 여자 12.7회)임

〈 표 28 〉 만남 횟수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평균횟수	계	1회	2회	3~4회	5~9회	10회 이상	없음(0회)
전 체	12.7	4,280 (100.0)	559 (13.1)	402 (9.4)	541 (12.6)	423 (9.9)	2,175 (50.8)	180 (4.2)
남 자	12.6	890 (100.0)	107 (12.0)	78 (8.8)	107 (12.0)	94 (10.6)	461 (51.8)	43 (4.8)
여 자	12.7	3,390 (100.0)	452 (13.3)	324 (9.6)	434 (12.8)	329 (9.7)	1,714 (50.6)	137 (4.0)

□ 고령자가 평소 한 달 동안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이웃, 친척, 지인, 요양보호사 등과 연락하는 경우는 10회 이상이 36.4%로 가장 많고,

○ 연락이 없는 경우는 14.4%임

□ 월 평균 연락 횟수는 8.7회(남자 9.9회, 여자 8.4회)임

〈 표 29 〉 연락 횟수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평균횟수	계	1회	2회	3~4회	5~9회	10회 이상	없음(0회)
전 체	8.7	4,280 (100.0)	556 (13.0)	406 (9.5)	609 (14.2)	534 (12.5)	1,560 (36.4)	615 (14.4)
남 자	9.9	890 (100.0)	92 (10.3)	80 (9.0)	147 (16.5)	100 (11.2)	380 (42.7)	91 (10.2)
여 자	8.4	3,390 (100.0)	464 (13.7)	326 (9.6)	462 (13.6)	434 (12.8)	1,180 (34.8)	524 (15.5)

마. 생활 및 시설 이용

고령자의 월 평균 의료시설 이용 횟수는 1.6회(이용자 기준)임

1) 생활비 부담 방법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의식주, 의료비, 용돈 등 생활비의 부담 방법은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이 80.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67.2% 순으로 나타남

〈 표 30 〉 생활비 부담별 고령자(복수 응답*, 2025)

(단위: 명, %)

	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웃, 종교단체, 사회단체	기 타
전 체	4,280 (100.0)	418 (9.8)	3,431 (80.2)	2,875 (67.2)	15 (0.4)	43 (1.0)
남 자	890 (100.0)	228 (25.6)	621 (69.8)	512 (57.5)	5 (0.6)	23 (2.6)
여 자	3,390 (100.0)	190 (5.6)	2,810 (82.9)	2,363 (69.7)	10 (0.3)	20 (0.6)

* 생활비 부담 방법은 복수 응답으로 항목의 합은 전체보다 많음

2) 의료시설 이용

□ 의료시설을 이용한 고령자는 월 1회가 63.5%로 가장 많고, 월 2회(15.1%), 월 3회(3.6%), 월 4회(3.0%) 순임

□ 의료시설을 이용한 고령자의 월 평균 이용 횟수는 1.6회임

〈 표 31 〉 의료시설 이용 횟수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계	이용한적 있 음	평 균 횟 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이 용 안 함
전 체	4,280 (100.0)	3,760 (87.9)	1.6	2,718 (63.5)	646 (15.1)	152 (3.6)	128 (3.0)	116 (2.7)	520 (12.1)
남 자	890 (100.0)	771 (86.6)	1.6	539 (60.6)	144 (16.2)	30 (3.4)	31 (3.5)	27 (3.0)	119 (13.4)
여 자	3,390 (100.0)	2,989 (88.2)	1.6	2,179 (64.3)	502 (14.8)	122 (3.6)	97 (2.9)	89 (2.6)	401 (11.8)

향후 '시설 입소 의향 없음'이 70.7%임

3) 재가 생활 시 불편한 점

- ☐ 고령자가 집(거처)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으로 '구조나 설비(출입구, 화장실, 부엌, 수납공간, 계단, 문턱 등)'가 47.9%, '불편한 점이 없음'이 40.4% 순임

〈 표 32 〉 재가 생활 시 불편한 점(복수 응답*, 2025)

(단위: 명, %)

	계	구조나 설비	온·습도 밝기·위생	안전사고 재난·재해	비용 부담	주택규모 문제	기타**	불편한점 없음
전 체	4,280 (100.0)	2,052 (47.9)	324 (7.6)	680 (15.9)	289 (6.8)	295 (6.9)	108 (2.5)	1,728 (40.4)
남 자	890 (100.0)	376 (42.2)	57 (6.4)	133 (14.9)	53 (6.0)	45 (5.1)	22 (2.5)	426 (47.9)
여 자	3,390 (100.0)	1,676 (49.4)	267 (7.9)	547 (16.1)	236 (7.0)	250 (7.4)	86 (2.5)	1,302 (38.4)

* 재가 생활 시 불편한 점은 복수 응답으로 항목의 합은 전체보다 많음

** 기타 : 소음(층간소음, 자동차 경적 등) 및 기타 의견

4) 향후 시설 입소 의향

- ☐ 건강이 악화되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할 의향이 '없음' 70.7%, '있음' 29.3%임

〈 표 33 〉 향후 시설 입소 의향(2025)

(단위: 명, %)

	계	있음	없음
전 체	4,280 (100.0)	1,256 (29.3)	3,024 (70.7)
남 자	890 (100.0)	237 (26.6)	653 (73.4)
여 자	3,390 (100.0)	1,019 (30.1)	2,371 (69.9)

〈 표 34 〉 향후 시설 입소 의향 주요 사유(2025)

(단위: 명, %)

구분	시설 입소 의향 이유	응답자수	구성비
입소의향 있음 이유 응답자 (1,184명)	건강 악화·거동불편 시 조건부 입소	356	30.1
	부양 가족의 돌봄 여력 한계(고령·체력·질병 등)	313	26.4
	자녀·가족에 부담(집)이 되기 싫음	212	17.9
	전문적 돌봄·치매 등 질환 케어 필요	199	16.8
	돌봐줄 가족·부양자 없음 외 기타	104	8.8
입소의향 없음 이유 응답자 (2,617명)	가족(자녀)이 직접 돌봄	748	28.6
	익숙한 집 환경에서 지내고 싶음	611	23.3
	시설에 대한 거부감·부정적 인식	603	23.0
	가족과 함께 거주 희망	554	21.2
	경제적 부담 외 기타	101	3.9

바. 기타

장수 비결은 절제된 식생활, 규칙적인 생활, 유전적 요인 순임

1) 삶의 만족도

□ 100세 이상 고령자가 현재 삶에 대해 ‘보통’이 43.7%, ‘만족’(매우만족+만족)이 33.1%, ‘불만족’(불만족+매우불만족)이 23.3%임

〈 표 35 〉 삶의 만족도별 고령자(2025)

(단위: 명, %)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4,280 (100.0)	217 (5.1)	1,197 (28.0)	1,870 (43.7)	792 (18.5)	204 (4.8)
남 자	890 (100.0)	67 (7.5)	299 (33.6)	376 (42.2)	128 (14.4)	20 (2.2)
여 자	3,390 (100.0)	150 (4.4)	898 (26.5)	1,494 (44.1)	664 (19.6)	184 (5.4)

2) 장수 비결

□ 100세 이상 고령자가 생각하는 장수 비결은 소식(小食) 등 절제된 식생활이 59.7%로 가장 많고, 규칙적인 생활(44.5%), 유전적 요인(32.1%) 순임

〈 표 36 〉 장수 비결별 고령자(복수 응답*, 2025)

(단위: 명, %)

	계	유전적 요인	절제된 식생활	규칙적인 생활	정기적인 운동	원만한 가족생활	낙천적인 성격	기타**
전 체	4,280 (100.0)	1,372 (32.1)	2,555 (59.7)	1,906 (44.5)	514 (12.0)	508 (11.9)	1,103 (25.8)	183 (4.3)
남 자	890 (100.0)	249 (28.0)	455 (51.1)	463 (52.0)	189 (21.2)	92 (10.3)	218 (24.5)	36 (4.0)
여 자	3,390 (100.0)	1,123 (33.1)	2,100 (61.9)	1,443 (42.6)	325 (9.6)	416 (12.3)	885 (26.1)	147 (4.3)

* 장수 비결은 복수 응답으로 항목의 합은 전체보다 많음

** 기타 : 보약 등 건강보조식품 복용 등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100세 이상 고령자의 규모와 분포, 건강, 생활습관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초고령 시대의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법적 근거

- 통계법 제5조의4 및 통계법 제17조 1항
 - 인구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01호
 - 주택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02호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총리령 제2055호, 2025. 10. 1., 타법 개정)

□ 조사기준 시점 및 조사 기간

- 조사기준 시점 : 2025년 11월 1일 0시 현재
- 조사 기간 : 2026. 2. 26. ~ 3. 9.(12일간)

□ 조사 대상

- 조사기준 시점 현재 만 나이 98세 이상 고령자 전체

□ 조사 방법

- 조사원이 고령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실시

□ 조사 항목

- 28개 항목(고령자 기본항목 4개 및 생활실태 24개)